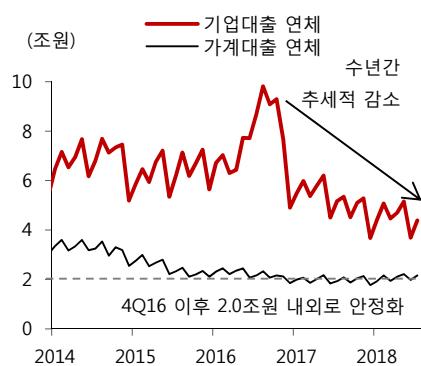




Analyst
김도하
dohakim@sk.com
02-3773-8876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본문 그림 9)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

주: '18년 4월 이후는 성동조선 연체금액 제외한 기준

연체채권 잔액 YoY 증가율 (추정) (본문 그림 10)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SK 증권

주: '18년 4월 이후는 성동조선 연체금액 제외한 기준

은행

7월 연체율: 연체지표는 아직 하락 국면

국내은행의 7월 말 연체율은 지난 4월의 조선사 한 곳 연체를 제외하면 -6bp YoY로 추세적 하락 지속. 가계 연체채권은 2.2 조원 (+12% YoY)으로 추정돼 최근 추이 대비 높은 증가율 기록. 가계 일반대출의 증가세 고려 시 연체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 하나, 4Q16부터 가계 연체채권이 매월 1.8~2.2 조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추세 이탈은 아니라는 판단. 연체지표는 아직은 하락 국면에 속해 있으며, 업종 대손지표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국내은행 7월 연체율 0.56% (+8bp YoY), 경상적으로 하락 추세 지속

국내은행의 7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 (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56%로 8bp YoY 상승했으나, 지난 4월 조선기업 한 곳의 연체금을 제외하면 경상적인 연체율은 추세적 하락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 6월 말 대비 연체율이 5bp 상승한 것은 매 분기 말, 반기 말의 기업 연체채권 정리에 따른 영향으로, 매년 7월 연체율은 7~8bp MoM 상승하는 계절성을 보임. 대기업 연체율은 1.79%로 +1.2%p YoY 상승했으나 조선기업 한 곳 제외시 0.4% 내외로 추산되며, 중소기업 연체율 0.58% (-11bp YoY), 가계 주택담보 연체율 0.19% (flat YoY), 가계일반 연체율 0.44% (-1bp YoY) 등 전반적인 연체율 개선이 이어짐 (그림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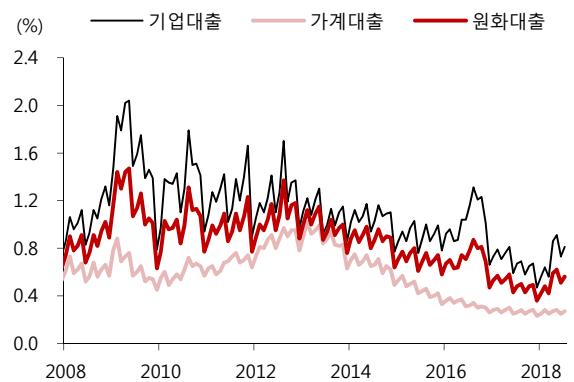
기업 연체율 하락 지속, 가계 연체채권도 추세 이탈은 아님

조선사 한 곳의 연체채권을 제외한 은행 연체율은 0.42% (-6bp YoY)로 추산돼 전년대비 하락세가 계속됨. 조선사 두 곳의 연체 규모를 제거하면 은행업종 총 연체율은 63개월 연속 YoY 하락 중. 7월 말 연체채권 잔액은 8.8조원으로 24% YoY 증가했으나 역시 조선사 제외 시 7% YoY 감소해, 대출잔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적인 연체 규모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그림 7). 가계 연체채권은 2.2조원 (+12.1% YoY)으로 추정돼 최근 추이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임. 예금은행 가계 일반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고려하면 가계 연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나, 4Q16부터 가계 연체채권이 매월 1.8~2.2조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추세 이탈은 아니라는 판단

연체지표는 아직 하락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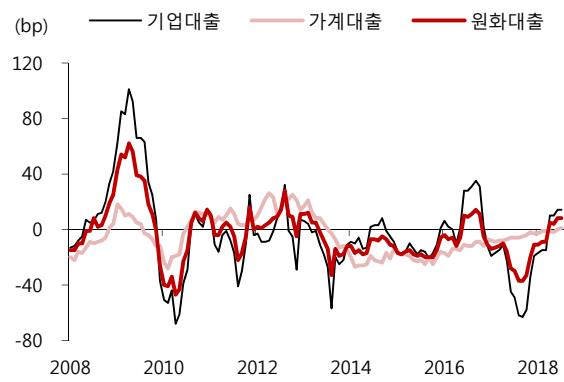
국내은행 연체율은 2013년 하반기부터 추세적인 하락을 지속해 옴. 4Q16 이후 은행업종의 월별 신규 연체는 평균 1.4조원 ('18년 7월 1.5조원)으로, 대출금리 상승 전환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및 2016년 평균인 1.7~1.8조원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 이자부담 증가와 경제지표 부진 등에 따라 가계 연체지표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하락 국면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은행업종 대손지표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그림 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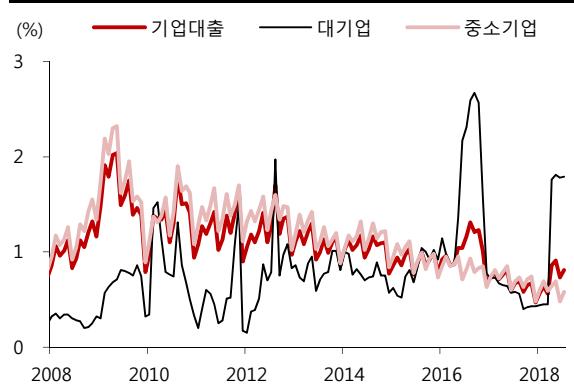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증권

그림 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자료: 금융감독원, SK증권

그림 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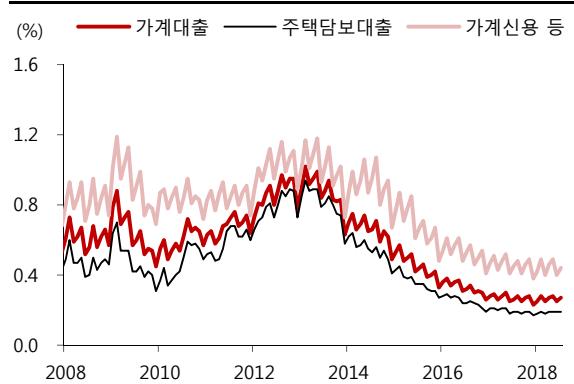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증권

그림 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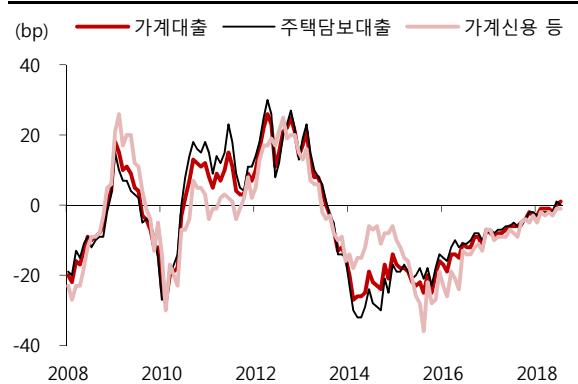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SK증권

그림 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SK증권

그림 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자료: 금융감독원, SK증권

그림 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대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체 규모는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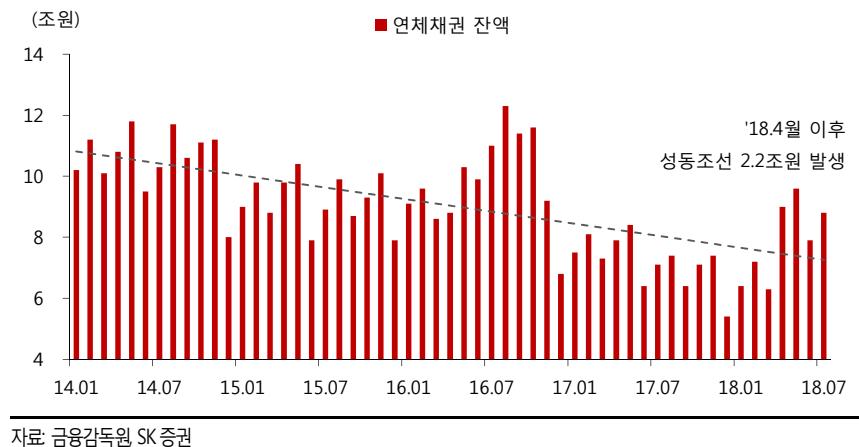


그림 8. 국내은행 월 중 신규연체 규모: 대출금리가 상승 전환된 4Q16 이후에도 신규연체는 감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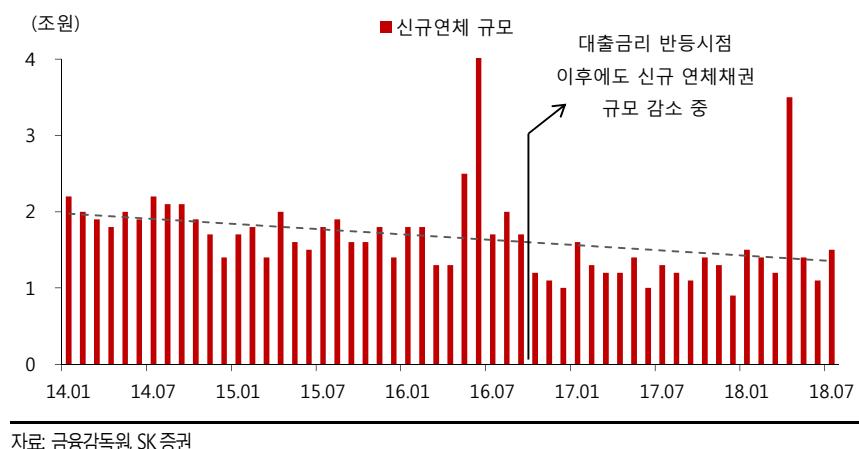


그림 9.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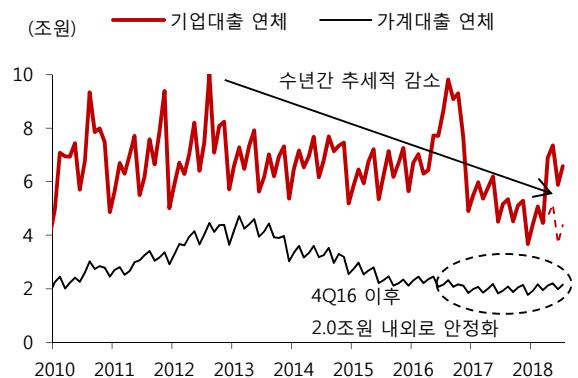


그림 10.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Compliance Notice

- 작성자(김도하)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팀당사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18년 9월 11일 기준)

매수	93.02%	중립	6.98%	매도	0%
----	--------	----	-------	----	----